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3. 8. 26**

**등록금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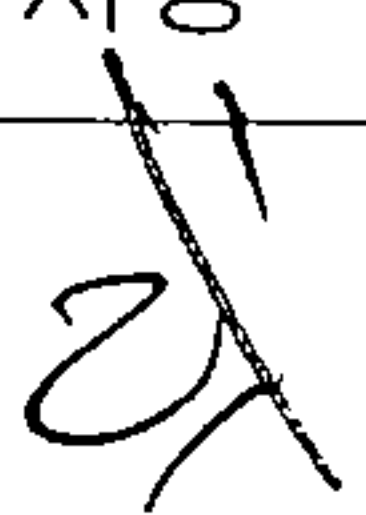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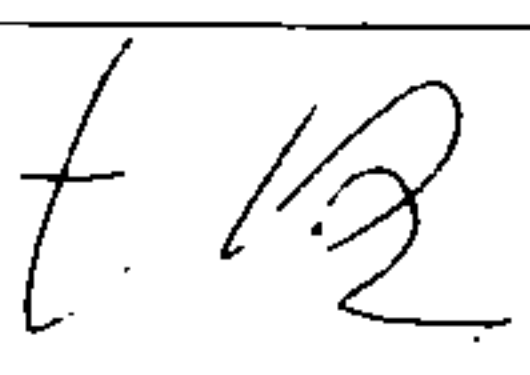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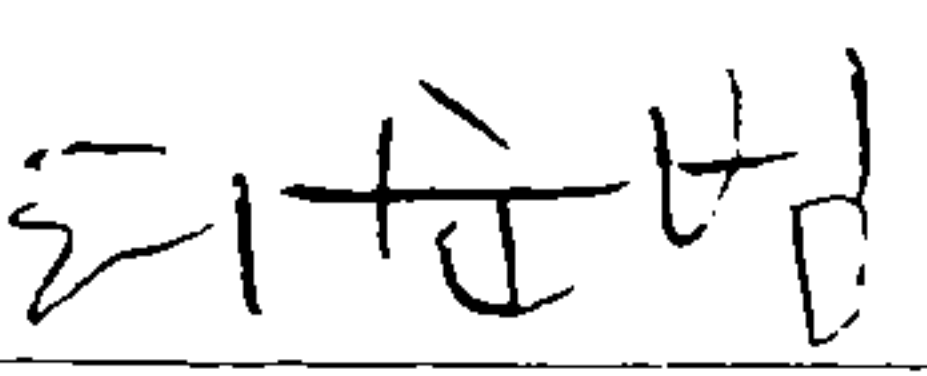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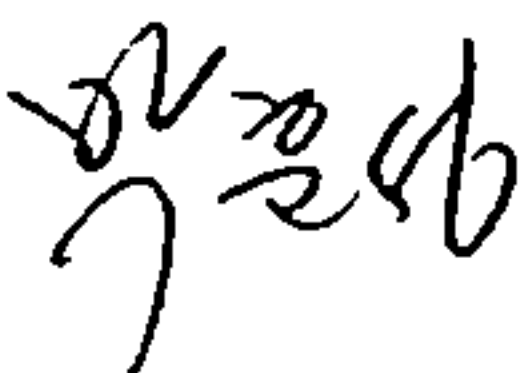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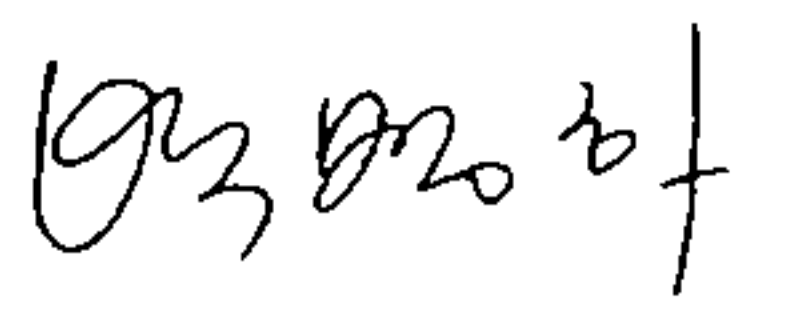

# 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서

## 1. 심의사항

- 다음과 같이 2014학년도 입학금 및 등록금을 심의 의결함

구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대비 인하률(%)		심의결과
	입학금 (원/연간)	등록금 (원/연간)	입학금 (원/연간)	등록금 (원/연간)	입학금	등록금	
대 학	1,000,000	6,600,000	978,000	6,600,000	2.2	0.0	가 결
대학원	1,000,000	7,400,000	1,000,000	7,400,000	0.0	0.0	가 결

‘끝’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서문성		김병두(도연)	
조성환		이문선(덕중)	
권탄준		허순범	
박훈성		백명하	
		정찬호	

# 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3. 8. 26(월) 10:00-11:0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석자 : 서문성위원, 조성환위원, 권탄준위원, 박훈성위원, 허순범위원, 백명하위원, 정찬호위원  
이상 7명 >

< 불참석자 : 김도연위원, 이덕중위원 이상 2명 >

## <성원보고>

**사회자** : 2013학년도 금강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최에 있어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7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함으로 지금부터 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2014학년도 금강대학교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에 대하여 본회를 거쳐 심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등록금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처장을 의장으로 하여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개회선언>

**서문성 위원장** : 심의에 앞서 2012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의하여 본교 학생들이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현재 등록금을 동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부 공청회에서의 관계자들도 대학의 재정문제에 많은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향후 서울 및 수도권 대학 나아가 지방대학을 포함하여 구조조정문제와 더불어 재정문제에 큰 이슈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약 3년 동안 대학에 대한 정책적 문제점이 표출되고 이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교 대학의 경우 2009년부터 연속적으로 동결을 추진하였으며 2012학년도는 -5.71%인하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였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2014학년도 등록금 대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강대학교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안건심의>

**조성환 위원** : 2012학년도에는 반값 등록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어졌으며 서울시립대의 경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확충이나 교육의 질 담보가 그 문제점입니다. 본교는 홍보방

향성 관점에서도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으로 모두 환원하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등록금의 책정은 국가시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탄준 위원** : 본 위원도 등록금과 관련되어서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또한 인상은 없다고 봅니다. 거론의 여지가 없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문성 위원장** : 허순범 학생회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순범 위원** :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적지만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본교의 장학금 혜택을 보고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에 비해 장학제도와 학사제도가 많이 변동되어 혹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명하 위원** : 혹시 본교의 등록금을 동결하는데 있어서 향후 몇 년 동안 동결한다는 약속이 가능한가요?

**서문성 위원장** : 대학운영비 및 예산의 세입, 세출의 측면 나아가 물가 인상을 등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등록금 연 단위로 책정하여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5.71% 인하하였고 올해에는 동결한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 본교 대학 등록금은 학업에 매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하여금 동기 부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단, 입학금은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명하 위원** : 대학의 등록금 비율이 30%, 70% 100%로 나누어졌다면 현재는 50%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체감하는 등록금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등록금 및 입학금의 동결 또는 인하기로 정했으면 합니다.

**서문성 위원장** : 학생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보직교수로서도 느낀 점은 전반적인 학교운영과 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에 대한 견해에 서로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강당의 시설보수가 문제가 되지만 다른 곳에서도 예산의 소요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학교 현실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찬국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찬국 위원** : 대학의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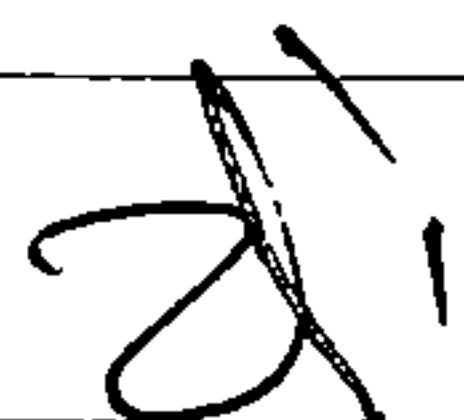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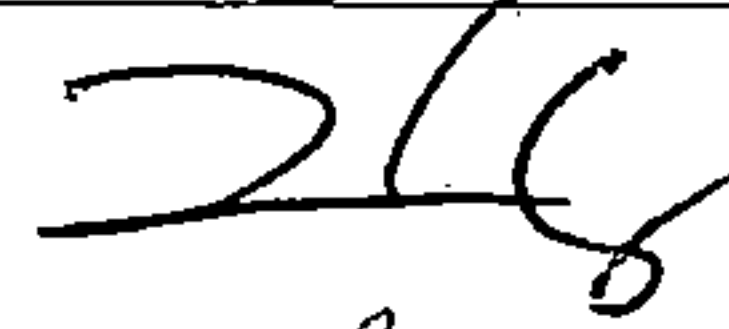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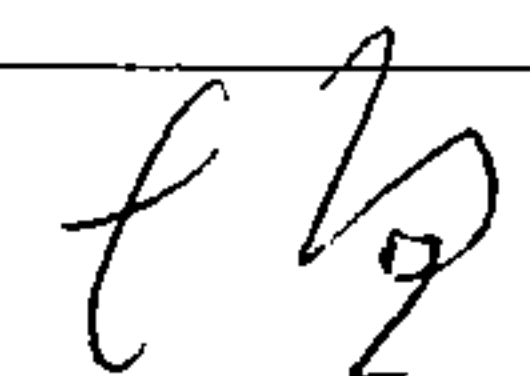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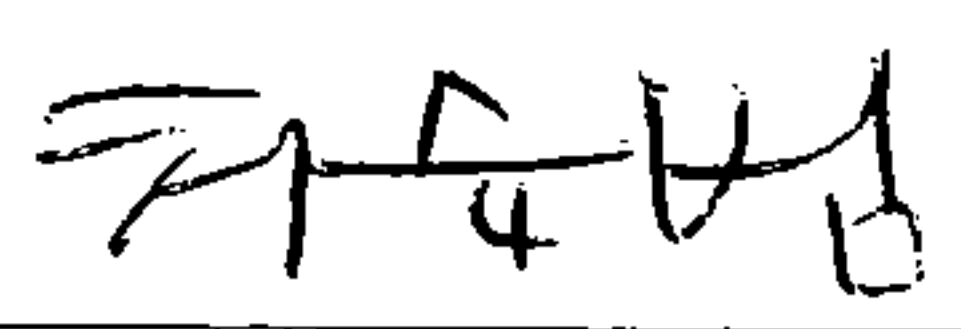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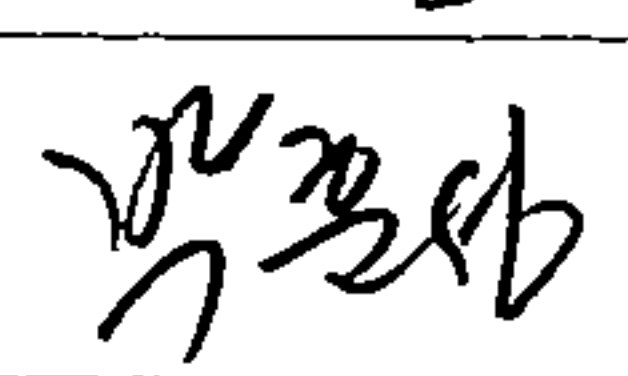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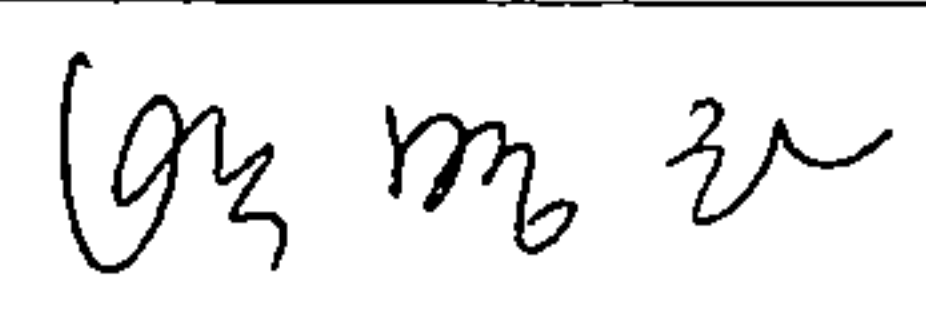
**서문성 위원장** : 위원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학금은 수도권대학 평균과 우리대학 실정을 감안하여 2.2%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회의의 안건인 2013년 등록금은 동결하고 입학금은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전체 위원** : (전원) 이의 없습니다.

**서문성 위원장** : 그럼 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상기 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 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서문성		김병두(도연)	
조성환		이문선(덕중)	
권탄준		허순범	
박훈성		백명하	
		정찬호	